

2008 문화계 결산 ① 광주비엔날레

올 한해 광주·전남지역 문화계의 핵심 이슈는 2008 광주비엔날레(9월5일~11월9일)와 뮤지컬 '시카고', 블루버스터 전시회인 '루벤스, 바로크 걸작'전(7월16일~11월23일) 등 대형 예술 행사의 성공이었다.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원년이 됐고, 대형뮤지컬 등은 지역의 전시·공연문화를 바꿔 놓았다. 또 지역의 젊은 문화인들은 중앙무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문화 남도'의 맥을 이었다.



외국인 오쿠이 감독을 영입한 2008 광주비엔날레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 미술축제로 자리매김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은 큐레이터 클레어 탄콘스가 기획한 '볼' 퍼포먼스의 거리 행진 모습.

亞太 넘어 세계인 미술축제로 주변 관광상품 개발이 과제

광주비엔날레는 해외 미술계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뜻 깊은 한 해를 보냈다. 개막과 함께 데이비드 엘리아트 일본 모리미술관 관장, 크리스찬 라템마이어 뉴욕현대미술관 큐레이터, 케이 소피 스위스 바젤 아트페어 감독 등 국제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미술계 인사 100여 명이 광주를 찾았다.

등 외형적인 성장에만 초점을 맞춰 놓은 것을 지양하고, 전시의 질을 높인 것이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 또 외국인인 예술 총감독으로 선임하고 주제를 엮는 등 파격적인 시도도 해외 미술계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냈다.

양한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어느 때보다 높았다. 빼어난 관광지를 앞세운 삼하이 등지와외의 경쟁을 위해서 비엔날레와 연계시킬 수 있는 지역 특색을 살린 관광지를 개발해 외국인 관람객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유료 관람객은 지난 2006 광주비엔날레(41만6천591명)에 비해 감소한 36만여명(대인시장 3만명 포함)에 그쳤지만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유료 관람객만 산정한 점등을 감안할 때 절반의 성공은 거뒀다는 평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외국인 관람객 수는 1만2천788명으로 전체 관람객(35만6천여명)의 3.6%이다. 이는 재단이 당초 계획했던 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이번 광주비엔날레 외국인 관람객 수는 1만2천788명으로 전체 관람객(35만6천여명)의 3.6%이다. 이는 재단이 당초 계획했던 5%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외국인 관람객 비율 5%는 세계 최대의 전시 관련 국제기구인 세계전시연맹(UFI)이 국제행사로 인정해주는 기준이다.

그동안 관람객 수를 늘리는

중부한 해외 인맥을 구축하고, 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 9월 광주문예회관에서 광주 시립교향악단과 그리그의 '피아노협주곡'을 협연했던 피아니스트 김정원

전반 위를 달리는 낭만과 열정

피아니스트 김정원 광주 공연 ... 23일 5·18문화센터

기교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광주에서의 첫 협연이었던 이날 공연에는 수많은 팬들이 몰려 김 씨의 스타파워를 입증했다.

만남 의미 있는 일이었기에 김 씨는 올해 14개 도시로 무대를 확장하고 현재 대전·제주 등 9개 도시 공연을 마친 상태다.

곡으로 어떤 곡을 들려줄 지도 공연 현장을 찾은 관객들이 만끽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국립박물관·미술관 내내에도 무료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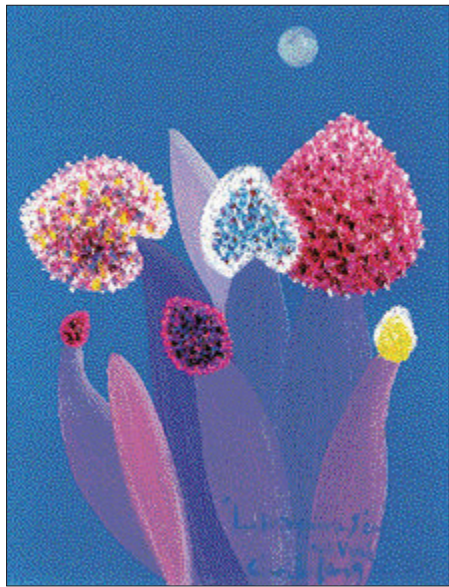
내내에도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5월부터 진행해 온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무료관람 시범실시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악화된 경제여건으로 문화소비 기호가 축소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화사한 파꽃의 세계로 오세요

화가 최항씨 운암동 황계 갤러리 초대전

화사한 파꽃의 화가 최항씨가 오는 2009년 2월17일까지 광주시 북구 운암 3동 주민센터 내 황계갤러리에서 초대전을 갖는다.



'파꽃은 바람에 흩날리고...' 일국제현대미술제 등에 출품했다. 문의 062-512-4217.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지난해 11월 목포문학관에서 열린 '제1회 김현 문학축전'.

제2회 김현 문학축전

20~26일 목포문학관서 심포지엄·공연 등 다채

목포출신 문학평론가 김현(1942~1990)선생을 기리는 제2회 '김현 문학축전'이 20~26일까지 목포문학관과 목포 오거리 일대에서 열린다.

또 김현 문학축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김현 문학 심포지엄'(20일 오후 2시30분)에서는 목포출신 문학평론가 황현산 고려대 교수와 정과리 연세대 교수가 발제를 맡고 최희문 광주여대 교수, 홍기돈 문학평론가, 신정호 목포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Advertisement for Z.A.A. Fair and Z.A.A. Special. It features the text 'Z.A.A. Fair' and 'Z.A.A. Special' with dates and locations. It also includes the slogan '다만시각에서 예술을 만나다.' and 'Z.A.A. Special'.